



조선시대 嶺南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

영남대 이 수 환



- 경상도- 별칭으로 영남

- 여말선초에도 신흥사대부들이 嶺之南, ‘영남’이란 용어를 자주 씀
- 17세기 이후, 특히 4색 당파가 나누어진 이후부터 남인의 본고장인 경상도를 영남으로 호칭 하는 경우가 많았음
- 이후 정부 연대기: 嶺南人, 嶺南人心, 嶺南風俗, 嶺南儒學 등의 용어 자주 쓰임
- 17세기 이후 영남인: 퇴계학파라는 同學의식, 남인이라는 同黨의식을 갖고, 동류의식과 일체감을 갖고 조선후기 노론정권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
- 퇴계학파와 남인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영남을 사용, 吾嶺

조선 시대 이전까지의 영남

- 삼국시대 이전: 辰韓, 弁韓지역 / 삼국시대: 신라, 가야로 발전
- 통일신라: 9주체제-경주, 良州(梁山), 진주, 상주-경상도 영역
- 995년(고려 성종 14): 전국 10도로 구획
- 嶺南道: 상주목 소관-조령이남 상주목 소관
- 嶺東道: 경주, 김해 소관 / 山南道: 진주 소관
- 고려 예종 이후: 계수관명을 배합한 지역명-慶尙晉州道, 慶尙晉陝州道, 慶尙州道, 尙晉安東道, 慶尙晉安道
- 1314년(충숙왕 원년): 경상도로 도명이 확정-조선 시대에도 계승

경상도 구획연역

- 고려시대 - 禮州(영해)목 소속의 平海: 강원도로 이속
- 天嶺郡(함양) 소속의 雲峰이 전라도로 이속
- 팔도체제가 확립되면서, 주변 道와 경계한 5읍이 충청도로 이속
- 1413년(태종 13): 상주목 소관의 沃川, 永同, 黃澗, 報恩, 靑山 등 5읍이 충청도로 이속 / 이것은 충청도 소속 5읍이 경기도로 이속 된 것에 다른 후속 조치임

영남의 특징

- 고려 시대부터 ‘地廣民衆’이라 하여, 타도와 균형 맞지 않음
- 태종, 중종, 명종, 선조 등 몇 번에 걸쳐 分道 하여, 감사를 2명 파견
- 분도할 때, 낙동강을 경계로 慶尙左道, 慶尙右道로 분도
- 1546년(명종 원년): 慶尙州道, 晉陝州道로 분도
→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, 한말까지 단일도로 이어져 옴
- 갑오개혁으로 경상남북도로 나누어짐

-
- 조선시대에 있어서 영남은 8道 中에서 가장 주목
 - 조선시대 영남: 인재의 부고, 국가 재부의 원천, 왜적방어의 방파제
 - 택리지-‘朝鮮人才 半在嶺南’ 조선전기를 기준하면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니다
 - 조선건국의 주체: 영남인-정도전 일파 등,
 - 16세기 김종직을 종장으로 하는 사림파의 중심: 영남인
 - 영남사림파는 16세기 말, 퇴계·남명학파로 대표되는 영남학파로 발전
 - 지역적으로 인물의 성쇠가 있음
 - 15세기초 -‘嶺南人才 半在晉陽’ / 15세기 후반- 김종직 일파 성장-‘嶺南人才 半在一善’
 - 퇴계 - 안동을 동방의 ‘鄒魯之鄉’

-
- 영조 때 박문수가 영남의 인문적 전통을 언급

“지금 朝廷官人 이나 閭巷의 백성까지 영남에 시조를 둔 사람이 70~80% 가 된다.”

- 15세기 말 成俔이 열거한 명문거족 75성관 中 40%
- 조선시대 사마시 입격 30위 중 경상도 14개 성관
- 중기(1506-1720) 문과급제자 20명이상 배출시킨 31개 성관 가운데 영남과 무관한 성관 3개 경상도가 가지는 강점 중의 하나

-
- 조선후기 노론정권 재야 남인으로 300년간 존속
 - 노·소론 핵심 安東金氏, 東萊鄭氏(鄭光弼), 大丘徐氏(徐渚), 靑松沈氏(沈德孚) 海平尹氏(尹斗壽) 등
 - 낙향: 光山金氏(金長生), 豐壤趙氏, 漢陽趙氏, 潘南朴氏 등
 - 18세기 이후 - 본관의식, 친족의식 강화

정적이지만, 각종 문중사업(송모사업, 족보편찬, 서원건립, 응시, 출사) 등에 도움

- 당파 분립 이전 이주세력: 驪州李氏, 載寧李氏, 廣州李氏, 韓山李氏, 瑞興金氏 등
- 京派가 없는 토착세력은 적음 眞城李氏, 慶州崔氏, 豐山柳氏, 晉州鄭氏, 玄風郭氏 등
- 고려 무신난, 여말선초, 연산조 2대사화 등 정치적 격변기에 낙향세력:
경상도 多 경상도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있었음

국가 재부의 원천

- 경상도는 8도 중에서, 전결수, 호구수, 군현수가 가장 多(66邑/71邑)-물산도 가장 풍부
- 그 외 서원, 사우 수, 정자 수 등 양반문화와 관련된 것은 8道 中 가장 多
- 농업사에 있어서 - 항상 선진적 농법을 개발해 나감
- 신흥사대부(중소지주): 여말이래 중앙정계에 진출하자, 성리학적 선진농법 도입해서 지역개발 활발히 추진
- 농촌사회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 이해
- 조선초기이래 새 農書편찬, 보급, 농경기술의 개량, 수리시설과 농경지 확대정책 등은 영남출신의 신흥사족들에 의해 추진됨
- 국가의 권농책도 영남의 선진농법을 모범으로 함

-
- 조선후기 수리시설 보급과 이앙법 보급 등 - 영남이 항상 앞서감
 - 17세기에 편찬된 농서인, 渭濱明農記』(柳軫, 1618), 農家月令』(高尚顏, 1619)에는 선진농법이 잘 나타나 있음
 - 이러한 선진농법은 영남의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
 - 이것이 영남사림파, 영남학파를 급속히 성장시킨 경제적 토대가 됨

재지적 기반

- 각 고을의 土姓 집단 – 해체되지 않음 – 향리, 재지사족, 상경관인 공급
- 5대 姓 김, 이, 박, 최, 정씨: 경주에서 出自, 파계 전국 확산
- 토지, 노비로 대표되는 강력한 경제적 기반
- 같은 성씨: 京派, 鄉派, 사족(양반), 이족(향리)으로 나누어 짐
- 상경 귀족·관료: 재경 또는 타도의 재지사족 끌어들이
- 卜居地 : 속현, 부곡 – 지역개발
- 주읍: 20% (66/331), 속현: 58% (44/72), 부곡: 55% (209/377)
- 임내 많이 보유한 지역: 사림 多(안동,진주,상주, 경주, 성주, 밀양, 선산 등)
- 이들 지역에 동성촌(명문가)형성 발전

-
- 조선시대, 경상도의 모습 - 호평
 - 근기지역 남인학자: 이중환, 이익, 안정복, 정약용 - “인심이 淳厚勤儉하고, 학문과 덕행을 숭상, 사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최적지”
 - 이익의 『星湖僊說』 -
 - “영남은 명산.준령이 사방에 둘러싸 있고 그 역내의 대소하천을 낙동강이 합류시켜 중앙을 관류하기 때문에 한 도로서의 통일성과 단결심을 지녀 倡義와 儒疏 같은 士林의 집단행동에는 항상 공동보조를 취했던 것이며, 인심이 순후하고 예의를 존중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근검한 습속을 지녔기 때문에 사대부가 擇居할 수 있는 樂土”라 하였다.

유교문화와 학문적 전통

- 성리학 수용과 보급, 발전에 중심
- 영남의 유교적 학문적 전통은 나말의 최치원 이래 전통이 깊다
- 고려시대 최승로, 김부식, 최해, 이제현 및 여말선초에 많은 영남출신 문사와 학자 배출
- 문학과 학문의 전통 - 다른 지방에 비해 탁월하게 계승
- 고려전기 - 경주최씨, 경주김씨계의 문신이 중앙정계에서 크게 활약
- 고려후기 무신란 때 임춘, 오세재 등 낙향하여 문풍을 보급
- 김부식 계열 - 詩賦詞章으로 당대를 풍미, 지방 수령으로 지방교육 진흥에 공헌

-
- 몽고 침입시 피해 적음 - 농업생산력 높음 - 재지사족이 많음
 - 주자학을 쉽게 수용함 - 여말 주자학을 받아들인 주체
 - 東文選(1478, 삼국-연산조, 서거정 등이 편한 시문집) 중 주자학 수입 이전의 것
- 영남 출신이 절반
 - 주자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, 학문적 전통이 있었음
 - 각 읍마다 군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在地吏族이 온존하여, 그들의 자제를 교육시켜 文士를 계속 배출하였기 때문

-
- 여말 주자학을 수용, 보급시킨 주체 - 안향, 권부, 우탁 등 신흥사대부 계층들인데 영남이 큰 비중을 차지
 - 조선초 영남출신 사림파 인사들이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여 -지방교육에 기여하고 성리학을 보급시킴
 - 吉再가 선산지방에 낙향- 성리학적 분위기 조성
 - 金宗直 -선산, 밀양, 함양군수- 이 일대에 사림파 인사 배출

-
- 성리학을 수용,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, 孝悌忠信을 숭상하는 사회윤리적 분위기도 타도에 비해 농후하게 지님
 - 효자, 열녀 많음, -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- 효자, 열녀 타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
- 효자 111명, 열녀 33명
 - 충청도 - 효자 31명, 열녀 18명, 전라도-효자 46명, 열녀 35명
 - 영남은 주자학이 수용되기 이전부터 유교적인 전통을 강하게 지님 - 성리학이 먼저 보급될 수 있음
 - 『평상도지리지』 서문(河演) - 경상도가 타도에 비해 인재와 物産만이 아니라 유교적인 미풍을 가장 많이 지녔다고 찬미하였다.

영남 문화의 거점 洛東江

- 영남이라는 지역의 문화는 자연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받음
- 영남은 지세상 죽령, 조령, 추풍령 등 태산 준령으로 경계한 ‘嶺之南’에 위치하고, 낙동강이 도내의 중앙부를 관류하고 있음
- 이러한 자연적 환경은 영남을 다른 道로부터 고립시킴
- 특히 낙동강은 영남문화의 형성 발전에 중요함
- 낙동강(525km) – 남한 제일의 장강, 유역면적은 한강 다음으로 2번째, 可航水路는 344km로 한강보다 길다
- 한강, 금강 등은 몇 개의 도역을 거쳐 흐름
- 경상도에서 시작하여(태백산 黃池, 도내 중앙을 관통하면서, 대소 지류를 합류시켜 김해 앞바다로 빠짐

-
- 경상도 군현은 거의 대부분 낙동강과 직간접으로 연관
 - 낙동강은 주민의 젖줄인 동시에 영남문화 형성, 발전의 원동력
 - 영덕, 청하, 영일, 흥해, 울산, 장기, 울산, 기장 등 71읍 중 13읍을 제외하고, 모두 낙동강의 본류, 지류의 유역에 분지로 형성
 - 71읍, 161개 驛, 마을은 山, 川을 중심으로 분지 형태 / 각 읍은 독자성, 개별성
 - 안동분지, 예천분지, 함창, 상주, 의성, 선산 등 - 토지 비옥, 水田이 많음
 - 군현 : 각기 개성 있는 지역문화 형성
 - 이후 점차 개별성, 독자성은 지향되고 통일성, 일체감을 이루면서 독자적 영남문화 형성

-
- 나말여초: 후삼국 쟁패기-강력한 호족 많았음
 - 고려 → 불교문화 / 조선→ 유교문화
 - 낙동강 본류, 지류: 조선시대 영남학파 대표 명문·거족 同姓村 형성, 서원, 정자 많음
 - 안동: 陶山·虎溪·屏山서원, 상주 道南, 현풍 道東, 성주 檜淵, 인동 東洛, 함양 藍溪, 진주 德川, 밀양 禮林서원 등
 - 조선시대 낙동강 유역은 영남의 양반, 유교문화의 중심지
 - 海居보다는 江居, 강호보다는 溪居를 선호
 - 복거지 背山臨水 분지: 땔감조달, 식수조달, 관개용수, 피병피세, 묘산

-
- 교통로 역할: 대외관계상 중요한 교통로 역할
 - 왜국사행 - 세종조부터 일본과 정상화되어 일본사절의 왕래와 무역
 - 낙동강 수로 활용 - 강 주변에 왜관, 倭物庫가 설치됨
 - 조세 공물과 魚鹽船, 교역 - 낙동강 수로 이용
-
- 임진왜란: 낙동강 유역을 중심한 의병활동
 - 왜적의 북상과 적병의 군수수송을 차단

-
- 경상도 감사였던 河演은 『경상도지리지』 序文에서

“名山과 洛江으로 襟帶해 있는 영남에서 발생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정통왕조로서의 정치적.문화적 유산을 후세에 전해주자 후대인들은 영남이 다른 지방에 비해 훌륭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우수성 및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人物을 배출시켰다”

고 하였다.

-
- 『경상도지리지』에서 경상도의 俗尙과 특징을 총괄적으로 평하되

“도내의 俗尙은 대개 禮讓을 존중하고 질박.검소함을 숭상하며, 文을 숭상하되 武를 좋아하며, 農桑을 힘쓰는 대신 商工業을 멀리하며 변화와 富庶함이 諸道에 으뜸가며 名門巨族이 조정에 가득 차 있다”

고 하였다. 이러한 인식태도는 西人집권기인 조선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.

좌도·우도 - 퇴계 학파와 남명학파

- 경상도는 단일도로 내려왔지만, 左道와 右道는 역사적 전통이 다름
- 좌도-진한 - 신라 - 삼국통일, 고려 - 친 정부적 입장, 중앙에 진출
- 우도-변한 - 가야 - 신라에 병합 - 반정부적 입장
- 좌도 - 안동 / 우도 - 진주

- 우도 - 15세기 후반 - 16세기 초 - 김종직, 김굉필, 정여창, 김일손
- 무오, 갑자사화로 희생
- 좌도 - 16세기 중반 - 이언적, 권벌, 이현보 등 - 을사사화로 희생

-
- 16세기 말에는 특색 있는 두 학파가 형성
 - 좌도 - 퇴계학파(이황) / 우도 - 남명학파(조식)가 형성
 - 퇴계학파 - 명종말-선조 초 중앙정계를 장악
 - 남명학파 - 임란때 영남지방의 의병활동 주도
 - 동서 분당시-퇴계, 남명학파 - 동인
 - 남북 분당시 -퇴계학파 - 남인 / 남명학파 -북인
 - 이후 양 학파는 학문적 입장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면서 대립, 반목

-
-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과 이종환은 경상좌우도의 상이점을 비교

- 이익:

진주는 옛 변한의 땅으로 富麗함이 가장 크다. 대개 연해지방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내륙지방에는 면포·마포생산이 많다. 경상우도는 대개 의식이 풍족한 고장으로 불려진데 반해 文明은 좌도에 크게 뒤진다.

- 이중환:

경상좌도는 토질은 척박하고 주민은 가난하며, 비록 儉嗇하나 文士는 많다.

우도는 토질은 비옥하고 주민은 부유하며 豪侈를 좋아해 투타(儉惰)하고 문학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貴顯한 선비가 적다. 이것이 경상좌·우도의 큰 차이점이다.

- 좌도는 사환이 많고, 우도는 경제적 윤택을 누림
- 좌도, 우도의 학문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침

-
- 퇴계와 남명 - 年甲
 - 퇴계 - 성리학을 종합 집대성한 학문적 권위, 동방의 朱子, 저술 많음, 고관요직 지냄, 명종 말-선조 초 신진사류의 영수로 조야의 숭앙을 받음, 당대 학자 대부분 그 문하에 출입(이이, 성훈), 제자가 전국을 포괄
 - 남명 - 과거를 포기하고 遺逸로 천거되었으나 포기, 山林處士로서 일생을 보냄, ‘정자, 주자 이후 학자는 저술이 필요없다’-성리학에 있어 실천을 중요시 함. 임난 때의 병장
 - 정구, 정인홍, 최영경, 곽재우, 김면, 김효원 등
 - 족적 - 우도를 벗어나지 못함, 문인은 퇴계학파에 비해 기반이 얇음

-
- 퇴계 - 온건, 신중, 극한적 대립 피하고 상호공존 모색
 - 남명 - 과격, 직선적, 저돌적, 直立, 저항적
 - 1555년(명종 10) 乙卯辭職疏
 - “(전략) *나라의 근본은 없어졌고,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. ... 대비 (문정왕후)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,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.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 시렵니까.*(중략)
 - 이익 - 퇴계 - 仁, 海闊 / 남명 - 義, 山高

-
- 퇴계, 남명학파, 남인, 북인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함
 - 양 학파는 시국 인식이 달랐고, 양 학파의 영수(류성룡, 정인홍)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함
 - 정여립 모반 사건(기축옥사) - 崔永慶 피화
 - 임란 이후 정인홍이 남명학파의 영수라는 학문적 명성과 의병장의 공로로 중앙정계에 다시 등장 - 류성룡을 탄핵, 실각시킴
 - 임란 후 남명학파 신장(大北)-북인의 핵심으로 등장

-
- 반대파인 남인, 서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언적, 이황과 이이, 성혼 등을 공격
 - 남인, 서인의 공동의 적이 됨
 - 1610년(광해 2) 에 東方五賢(김굉필, 정여창, 조광조, 이언적, 이황) 문묘종사, - 1611년에 정인홍이 晦退排斥論을 올림 - 관계 악화
 - 남명학파 - 인조반정으로 정인홍이 광해조의 殺兄弟廢母에 관련되어 처형 - 남명학파 결정적 타격

-
- 양 학파 균형이 깨어지고, 정인홍 추종하던 우도의 재지사족은 중앙 정계과 담을 쌓게 됨
 - 남명학통은 鄭蘊을 마지막으로 조락
 - 이후 남명학파는 정구 등을 매개로 퇴계쪽으로 기움 / 노론으로 편입
 - 영남지역은 퇴계학맥으로 통일됨
 - 남명학파는 영조 4년 戊申亂 때 정희량난으로 다시한번 결정적 타격

-
- 인조반정 이후 영남지역 학맥의 중심은, 성주, 인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중앙부의 한강(정구)·여헌(장현광)의 寒旅學派
 - 정구-퇴계, 남명학파를 융합했다고 볼 수 있으나 퇴계쪽으로 기움,
 - 한강제자(339), 여헌제자(170)
 - 上道, 下道로 구분 - 학파 간의 우열의식

퇴계학파의 전개

- 柳成龍-鄭經世·李埈-洪汝河-鄭宗魯-柳疇睦-柳厚祚 ——영남학파
- 金誠一-張興孝-李玄逸-李栽-李象靖-柳致明-金興洛
- 鄭述-(張顯光)-許穆(1595~1682)-李瀾-安鼎福-許傳 ——近畿學派
權哲身-丁若鏞
- 趙穆 - 북인

嶺南과 京南의 정치적 제후

- 영남유소-牛栗(성훈, 이이) 승무 반대 / 禮訟(현종) / 兩宋(송시열, 송준길) 승무 반대소 / 김장생 승무 반대소
- 류직의 예론소 - 남인 집권의 한 계기가 됨
- 근실(謹悉)-18세기이후-성균관에서 승인해 주는 제도-노론장악
- 노론측이 영남유소를 무산시키기 위해 나옴
- 정조때 萬人疏 나옴 - 정조 16년(1792) 사도세자신원소
- 이우 - 1. 2차 - 정조 사도세자 문제 해결에 자신감, 정당성 확보
- 이후 순조년간 - 세도정국

-
- 체제공—후견인, / 위선사업(조상 현양사업) 적극적으로 도와줌
 - 정조 12년 이진동의 戊申창의에 관한 유소 - 『후신창의록』 편찬
 - 정조 영남에 대한 생각이 바뀜 - 鄒魯之鄉, 人才府庫
 - 도산, 옥산서원 致祭 / 도산서원 別試 -참가자 7,228명, 試券 3632명 - 嶠南賓興錄』
 - 정조 22년 - 嶺南人物考』 49책, 1,800여명 - 정조의 대 영남정책의 하나로 추진
- 안정복, 이가환, 정약용 등 京南 등용
 - 체제공신원소-영남 발의